1201(목) 에베소서 4-6장　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

에베소서는 교리(1-3장)와 윤리(4-6장)로 구성되어 있으며
무엇을 믿고,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균형 있게 다룹니다.
모세가 출애굽 이후 산에 올라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듯,
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<성령>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(4:8).
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갑니다.

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주께 속했다는 표지입니다.
성령님은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<충만>으로 채워주시며
마음과 생각, 삶의 양식 등 근본적인 부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.
이로써 성도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.
(4:25-5:2/4:17-24)

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참된 사람됨,
진정한 인간경험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갑니다.
부도덕과 어둠의 세상에서 분별과 거절의 방법을 배우며
참된 연합과 친밀함,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(5:3-6:9).
힘 가진 자가 아니라 <주님>이 기준이 됩니다.

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라고 권합니다.
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은 서로 서로를 돌보고 섬겨
건강한 지체들로 성장/성숙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.
교회는 같은 주님/믿음/세례로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
한 성령으로 <하나 됨>을 힘써 이뤄가야 합니다(4:1-16).

그리스도인은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.
예수님의 부활과 새 일들에 긴장한 악한 영들이
천국의 확장을 막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안달입니다.
성령으로써 진리/의/평화/믿음/구원/복음으로 무장하며
항상 깨어 기도와 간구에 힘써야 합니다(6장, 벧전5:8).

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?
❶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된 사람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?
❷ 은사로써 하나님과 지체들을 섬기며 주님에게까지 자라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　에베소서 4-6장